

충청남도청 이전 추진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 가져



충청남도는 9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충남도지사, 박동운 도의회 의장, 16개 시·군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년간 200만 도민들의 열망속에 논의되었던 도청이전의 본격적인 추진을 담당할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지역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도와 시·군간 상호 협정식을 가졌다.



충남도는 지난 6월 27일 도의회 본회의시 심대평 도지사의 도청이전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천명아래 “도청이전추진조례”를 지난 7월 20일 제정·공포하고, 8월 18일 도의회 도청이전추진위(위원장 오찬규 의원)를 통해 추진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설정된 도청이전 추진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청이전 추진절차를 담당할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도의회 위촉동의를 8월 29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발족한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위촉직(민간) 위원 10인과 당연직 위원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어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 등 제반절차에 대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인선되고 도의회 동의를 통해 김유혁 금강대 총장과, 김경숙(공주대 교수), 김용관(건양대 교수), 박찬규(충남대 교수), 온영태(경희대 교수), 이진우(호서대 교수), 김명수(한밭대 교수), 신항식(과학기술원 교수), 이길영(대전대 교수), 조연상(목원대 교수)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또한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한 협정식을 통해 심대평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및 16개 시·군의 시장·군수 외 시·군의회 의장은 앞으로 지역간 과열 유치경쟁을 서로 자제하여 부동산 투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200만 도민의 축복속에 도청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는 기본정신을 천명했다.

협정서에는 도청예정지 결정은 지난 7월 20일 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조례”가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 실시하고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여론을 수렴하고, 시·군 참여를 보장하며, 시·군 및 민간 등의 도청유치활동 또한 조례가 정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추진하여 과열 유치경쟁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제제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이 명시됐다.

심대평지사는 이제는 “도청이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보다는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도민의 의지와 지혜의 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위원회 운영계획과 자문위원회 구성, 후보지 평가절차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등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행정수도 예정지 선정방법과 같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도의회에 보고되고 최고 득점지가 도청이전지역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제5기 정책자문교수단 출범

- 10개분과위 60명, 도내 25개대학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위촉 -
- 도정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및 장·단기 발전계획 자문 -



충청남도는 8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 25개 대학 60명으로 구성된 자문교수와 도 실국장 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정책자문교수단 출범식을 갖고 단장, 분과위 위원장 선출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토의했다.

제5기 정책자문교수단은 2년 임기로 기획분과위원회 등 총 10개 분과위 60명으로 구성되며, 여성자문위원이 36.7%, 신입위원 38.3%, 도내대학교수 71.6%로 제4기 교수단보다 여성과 도내교수의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도정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자문 ▲도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자문 ▲새로운 정책구상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자문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실시한다.

이날 심대평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방도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은 충남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제5기 정책자문교수단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개발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지난 1996년 11월에 제1기 출범을 시작으로 전체회의 및 분과별회의 등을 통하여 소관 전문분야별로 활동하였으며, 도정의 주요정책을 수립, 평가 등 정책의 형성과 환류과정 등에 참여하는 등 지방화시대 정책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